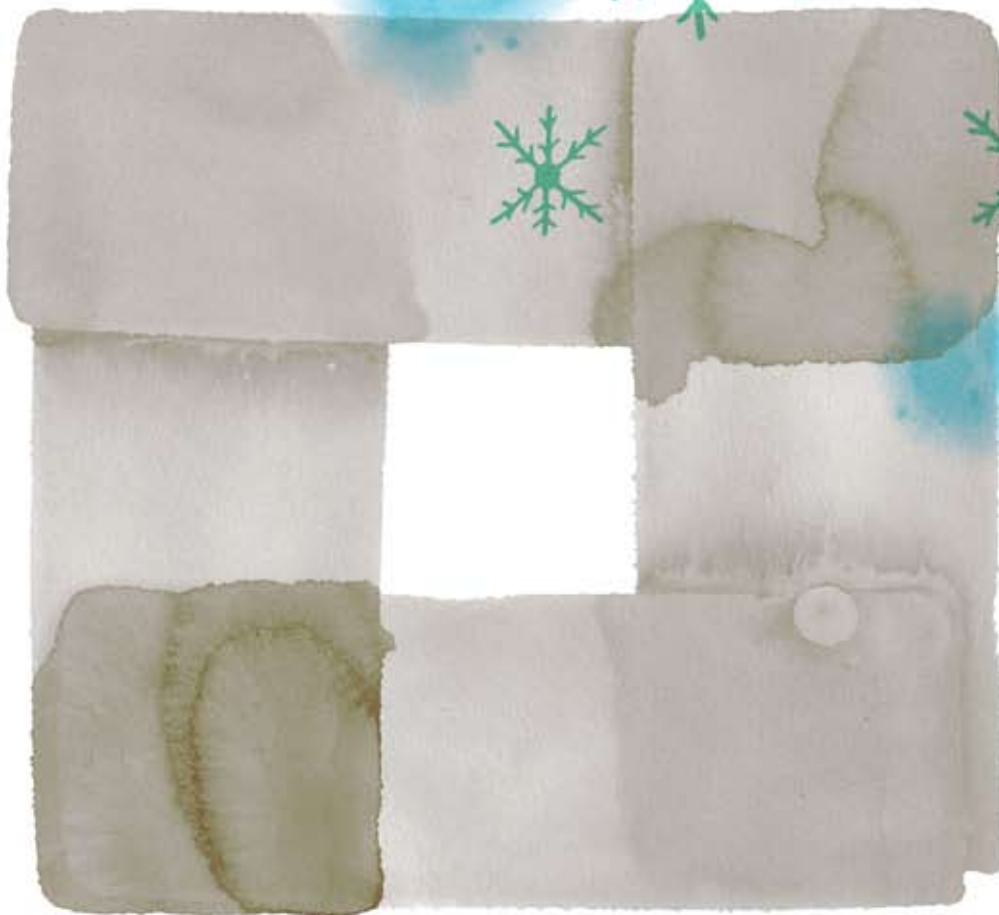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12

DECEMBER 2015
vol.12
MONTHLY MAGAZINE

가마득하게
잊어버렸던
이름 하나
시린 허공을
건너와
가마득
내 손등을
적시니

김영택의 첫눈을
이상현 상현 적다.

표지 작가소개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해를 품은 달〉 〈타짜〉 〈국순당 우국생, 백세주〉 〈교촌치킨B〉

현.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예문화예술학과 초빙교수

사. 한국 미술 협회 이사, 한국 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상임이사

골목에 서서 옛 기억을 추억하다



Memories of the alley



어쩌면 만날 수 있을까 그 길에서

담벼락에 서서 짝사랑 하는 옆집 오빠를 기다리던 소녀,
길모퉁이에 있던 공중전화로 사랑을 고백하던 수줍은 소년, 첫 사랑의 추억,
첫 키스의 이련함, 첫 눈을 맞이하던 설렘...
그리 멀지 않은 시간, 골목길은 우리의 청춘을 아름답게 빛낸 곳이었다.
그뿐인가. 신나게 뛰어놀던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가고 골목 여기저기에서
피어오르던 저녁연기, 아이들에게 줄 봉어빵을 사들고 흑시나 식을까 옷깃을 여미며
종종걸음 치던 아저씨, 이 길 저 길을 어슬렁거리던 동네 개 환둥이...
골목길의 추억은 이렇게 마음 한 편을 따뜻하게 지퍼준다.
번잡스러운 길보다는 한적하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골목길.
동물원의 노래 '혜화동' 가사에는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라는 구절이 있다.
짧은 노랫말이지만 우리가 이 노래에 정감을 갖는 것은 누구에게나 골목길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골목길 위에서 자라난 '골목길 세대'에게 골목은
우정과 사랑이 시작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 그대와 둘이 걸던 그 좁은 골목계단을 홀로 걸어요 그 옛날의
질은 향기가 내 옆을 스치죠' 서태지의 노래 '소격동' 가사가
마음에 박히는 이유다.

좁은 골목길의 추억

40~50대 이상, 혹은 지금의 30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좁은 골목길의 추억이 있을 것이다. 세상물정 모르고 뛰어놀던 그 비좁은 골목길은 당시 아이들의 야구장이 되기도 했고, 축구장이 되기도 했으며, 소꿉놀이나 숨바꼭질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했다. 골목길에 무심히 서 있는 전봇대조차 아이들의 친구였다. 개구쟁이 아이들은 전봇대를 벗 삼아 말 타기를 하기도 했고, 말괄량이 아이들은 전봇대에 고무줄을 묶고 고무줄 놀이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옛 추억을 소환하고 싶은 이들에게 한적한 골목은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되어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응답하라 1988'은 80년대 후반 서울 쌍문동 골목 5인방의 청춘 일기를 그리고 있다. 드라마의 배경은 온통 촌스러운 것들로 가득하지만 이 드라마를 보며 힐링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골목길을 중심으로 정이 넘치던 그때를 회상하는 것이다.

최근 골목길이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도 이와 일맥상통할 것이다.

오래된 골목길에서 위안을 받다

서울 연남동 거리를 비롯해 용산구의 경리단길과 한남동 일대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아기자기하고 정겨운 느낌에 데이트 명소가 된 종로구 서촌과 부암동 일대는 비단 데이트족뿐 아니라 아마추어 사진작가들에게도 인기 있는 곳이다.

넓은 빌라만 가득했던 마포구 상수동 일대는 언제부터인가 조용한 카페나 이색 와인바가 들어서 이국적이면서도 색다른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에 마음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도성장의 결과물인 빌딩숲과 대로, 아파트 단지, 복잡한 쇼핑몰은 사람을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추억과 따뜻한 정이 흐르던 오래된 골목길에서 편안함과 새로운 재미를 찾는다.

'응답하라 1988'이 세대를 초월해 문화 현상으로까지 번지는 이유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도시인들은 늘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다. 골목처럼 정감 있고 아기자기한 공간에서 위안을 받는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아파트 숲에서 살아가는 요즘 아이들에게 골목의 추억을 선물하지 못하는 사뭇 미안함으로 다가온다. 요즘 아이들에게 '골목대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골목길에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자동차들은 좁은 골목길도 썩씩 달리기 일쑤다. 골목길은 이제 안전한 장소가 아닌, 위험천만한 길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요즘 아이들에게 골목길의 추억을 물려주지 못하는 점은 그래서 안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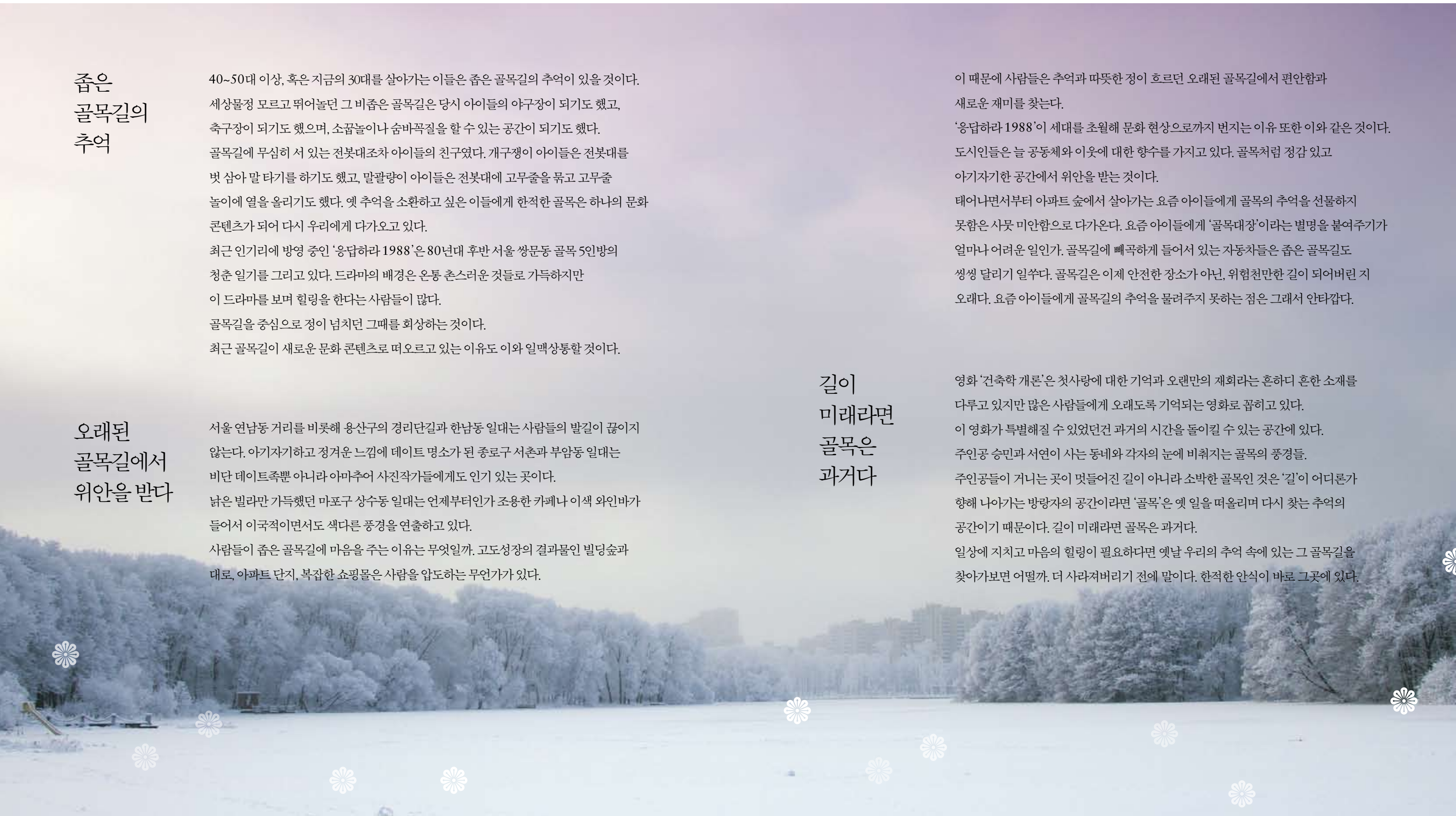
길이 미래라면 골목은 과거다

영화 '건축학 개론'은 첫사랑에 대한 기억과 오랜만의 재회라는 흔하디 흔한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영화로 꼽히고 있다.

이 영화가 특별해질 수 있었던 건 과거의 시간을 돌이킬 수 있는 공간에 있다. 주인공 승민과 서연이 사는 동네와 각자의 눈에 비춰지는 골목의 풍경들.

주인공들이 거니는 곳이 멋들어진 길이 아니라 소박한 골목인 것은 '길'이 어디론가 향해 나아가는 방랑자의 공간이라면 '골목'은 옛 일을 떠올리며 다시 찾는 추억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길이 미래라면 골목은 과거다.

일상에 지치고 마음의 힐링이 필요하다면 옛날 우리의 추억 속에 있는 그 골목길을 찾아가보면 어떨까. 더 사라져버리기 전에 말이다. 한적한 안식이 바로 그곳에 있다.



CONTENTS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5년 12월호 vol.12
MONTHLY MAGAZINE, DECEMBER 2015



08 행복을 주는 사람 | 최병일 교수, 윤석운 강사, 윤영선 박사

인생 2막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쳐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시기. 새로운 도전과 용기로 채워나가야 할 시기가 바로 이 때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에게 '은퇴자의 공부법' 공동저자인 3명의 정퇴(정년퇴직), 조퇴(조기퇴직), 줄퇴(줄지에 퇴직)자가 조언한다. 읽고, 쓰고, 나눠라! 은퇴자의 공부와 행복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24 Anti Aging | 치유의 영양소, 파이토케미컬

식물이 주는 천연 항산화 성분인 파이토케미컬(Phytochemical)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과일 속의 파이토케미컬은 치유의 영양소로 평가받고 있다. 건강을 위한 새로운 도전, 파이토케미컬 사용설명서.



28 연금 포커스 | 연금 상품으로 똑똑한 연말 절세 전략 세우기

지금은 연말 정산 준비에 돌입해야 할 때! 은퇴자산도 축적하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을 중심으로 연말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34 경제 이슈 | 美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는 글로벌 경제, 특히 신흥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변화를 전망해본다.

OPENING

- 02 **행복을 위한 질문**
골목에 서서 옛 기억을 추억하다

INTERVIEW

- 08 **행복을 주는 사람**
공부하는 은퇴자는 정년이 없다.

INFO GRAPHY

- 12 **한눈에 보는 연금 세상**
고령인구와 삶에 대한 만족

행복미래설계

- 14 **H씨의 행복설계**
포트폴리오 재조정 및 지출액 조정으로 안정적 노후 생활
- 18 **지식 플라자-세무**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이 유효하려면?
- 20 **지식 플라자-상품소개**
비과세 해외펀드
- 22 **Do! Dream**
웹버족, 세상과 소통을 다시 시작하다
- 24 **Anti aging**
치유의 영양소, 파이토케미컬
- 26 **Alone, together**
오늘도, 도서관

연금이슈포커스

- 28 **연금 포커스**
연금 상품으로 똑똑한 연말 절세 전략 세우기
- 34 **경제 이슈**
美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 38 **부동산 이슈**
분양시장 변.곡.점 찍었나

경제 TREND

GLOBAL

- 42 **지구인 이야기**
2015년 세계의 시니어들

FUTURE

- 44 **은퇴, 버킷리스트**
우아한 도전, 서양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월간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5년 12월호 vol.12 (통권 12호)

발행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록번호 영등포, 리00424 등록일 2015.01.27 제호 행복Knowhow 간판 월간 발행인 배현기 편집인 김대익 발행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발행일 2015년 12월 7일
전화 02-2002-2200 팩스 02-2002-2610 홈페이지 www.hanaif.re.kr 편집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김상환 연구위원, 박지홍 연구원, KEB하나은행 | 이종면 팀장, 최호재 팀장, 김홍균 팀장, 하나금융투자 | 이정철 실장, 하나생명 | 최춘석 차장 재력 및 기획 특커뮤니케이션즈 전화 02-3452-3789 홈페이지 www.teum.co.kr



최병일 교수, 윤석윤 강사, 윤영선 박사

공부하는 은퇴자는 정년이 없다

인생 2막은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쳐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시기. 새로운 도전과 용기로 채워나가야 할 시기가 바로 이 때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조차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에게 '은퇴자의 공부법' 공동저자인 3명의 정퇴(정년퇴직), 조퇴(조기퇴직), 졸퇴(졸지에 퇴직)자가 조언한다. 읽고, 쓰고, 나눠라!

은퇴자의 공부와 행복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세 분은 모두 현직에서 은퇴해 인생 2막을 저마다 행복하고 열정적으로 뛰어가고 있으시죠.

우선 각자의 은퇴 후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죠.

윤영선 • 저는 32년간 연구기관 두 곳을 다니다가 정년퇴직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제2의 사춘기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대로 살다가 삶을 마감하기에는 내 삶이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시절 저는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또 다양한 강좌도 문을 두드려보고, 미술 공부에도 도전했죠. 그러던 중 한 교육기관의 '서평쓰기 입문과정'을 만나면서 책과 함께하는 인생 2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혼자 책을 읽던 골방독서에서 책에 대해 토론하며 생각을 나누는 광장독서에 입문하면서 '읽는 즐거움'에 빠져들었죠. 글쓰기도 시작했는데 그러고 보니 올해만 3권의 책의 저자로 참여했네요. 글쓰기는 자기 치유의 효과가 있어 꾸준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윤석윤 • 저는 조퇴와 졸퇴를 두루 경험한 케이스죠. 원양어선을 시작으로 무역회사, 시계회사, 교육회사 등 다양한 회사를 경험하기도 했고, 또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졸퇴를 당하기도 했죠. 이후에는 전문 강사의 길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던 중 글쓰기를 제대로 배워보려고 독서 토론모임에 참여하게 되면서 책읽기, 글쓰기의 매력에 빠져 인생 2막에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일 • 저는 조퇴에 속해요. 원래 기업 연수원에서 근무했는데 IMF 때 회사가 어려워지자 자진해 퇴직을 결정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했습니다. 공부하려고 들어간 대학원에서 지도교수의 도움으로 학교 강의를 경험했고, 토론교육이 앞으로의 교육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독서토론에 대해 공부했어요. 지금은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글쓰기, 독서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독서토론 모임도 이끌고 있습니다.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후회되는 일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병일 • 먼저, 책을 많이 읽지 못해 올바른 독서습관을 갖지 못 했던 거죠. 독서의 고수를 만나서 코칭을 받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대로 읽고, 폭넓게 읽는 독서습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다양한 경험이 중요해요. 젊을 때 여행을 많이 하면 좋아요. 독서와 여행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사고의 폭이 달라지죠. 독서와 경험으로 사고의 폭을 넓힌다면 가치관이 명확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윤석윤 • 돈을 우선으로 두지 말아야 해요. 돈보다는 자기가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책에 대해 얘기해주고 싶네요. 책을 읽으면 다중지능이 가능해지거든요. 특히 자아성찰지능, 인간관계지능이 높아지죠.

윤영선 • 직장생활이 다 그렇듯이, 안전한 울타리에 갇혀서 나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은퇴 이후의 삶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요. 또 살아가면서 가끔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아성찰의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고 봐요. 여기에 책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세 분 모두 은퇴 후 독서의 길을 걷고 계시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최병일 • 인간이 판단의 오류를 일으키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하는데, 바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이에요. 나이 들면서 이 세 가지가 굳어지게 되고, 결국 관계의 단절과 갈등이 생기죠. 보통 은퇴한 세대들은 소통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해요. 특히 가족 간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책 읽기와 독서토론이 그 간격을 좁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윤영선 • 문학, 철학 등 독서는 세상을 이해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탈피해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편견의 벽이 높으면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기 힘들어요. 책을 읽고, 토론을 통해 다른 이들의 생각을 듣다 보면 유연한 사고가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윤석윤 • 책을 읽으면 진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책은 '자극'을 줘요. 자극을 받아야 반응이 일어나는 법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혼자 읽지만 말고, 토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의견을 경청하다보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죠. 책을 좋아한다면 우선 도서관의 독서회에 가입할 것을 권합니다. 지적 즐거움도 누리고, 소통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으신 세 분의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윤석윤 •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꿈 리스트를 적었어요. '책 쓰기'는 그중에 하나였지요.

윤영선 • 먼저, 어릴 적 자기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그 시절 자기가 무엇을 잘했고, 좋아했는지 더듬다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다음은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인내가 필요한 법이죠.

최병일 •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저는 하루 중 책과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외롭다고 하는데 저는 책이 옆에 있어서 외로울 틈이 없어요. 책 읽는 것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됐죠.

요즘은 글쓰기와도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영선 박사

“
행복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

최병일 교수

“
행복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

윤석윤 강사

“
행복은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대화하는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병일 • 행복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죠. 나와 나라는 관계에서 사랑이 존재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가족, 옆에 있는 이들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윤석윤 • 행복은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고 대화하는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윤영선 • 행복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우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정하고, 큰 목표와 작은 목표를 나눠보세요. 그다음 작은 목표를 세분화해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이 행복을 가져다줘요.

앞으로 어떤 즐거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최병일 • 지금처럼 앞으로도 독서토론 모임을 이끌고, 학교 강연도 지속할 계획이에요. 또 '자녀교육법'에 대한 책도 준비하고 있어요.

윤석윤 • 건강학에 대한 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글쓰기 입문서, 서평집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윤영선 • 저의 최종 목표는 저술가, 강연가입니다. 내년에는 이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정하고 좀 더 공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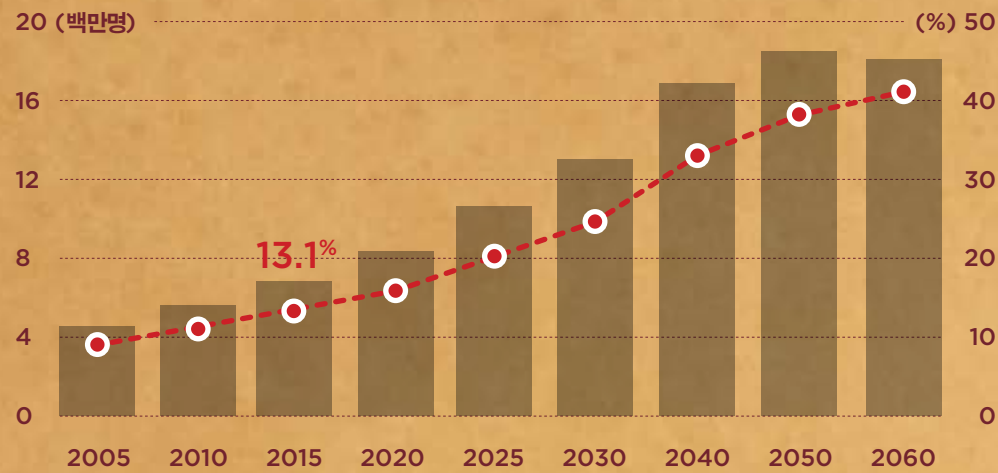
고령인구와 삶에 대한 만족

고령인구(65세 이상)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삶에 대한 만족은 높지 않다.

01. 고령인구 추이

주 : 비중은 전체 인구대비 비중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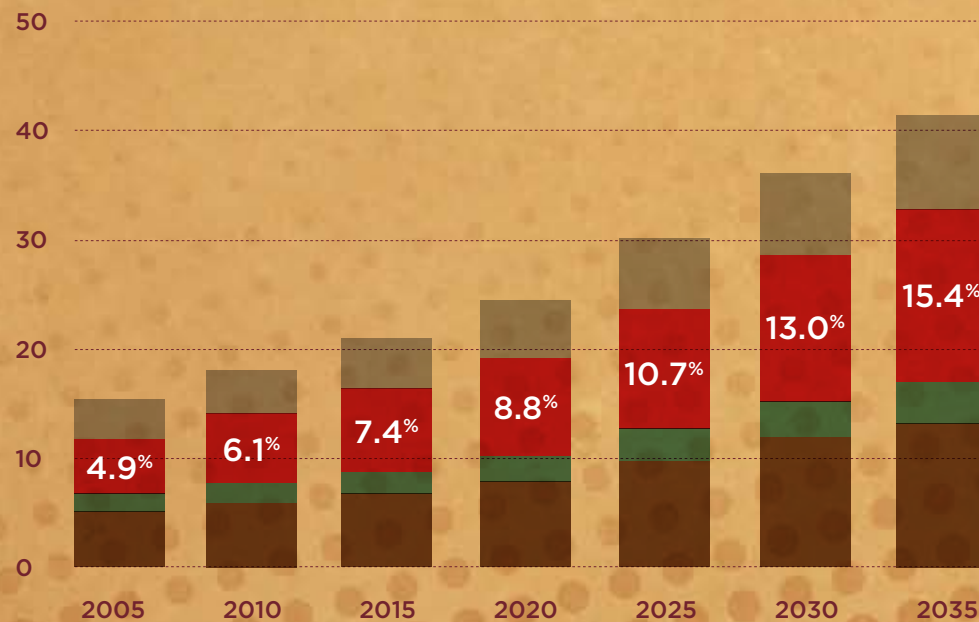
■ 고령인구
○ 비중



02. 고령자 가구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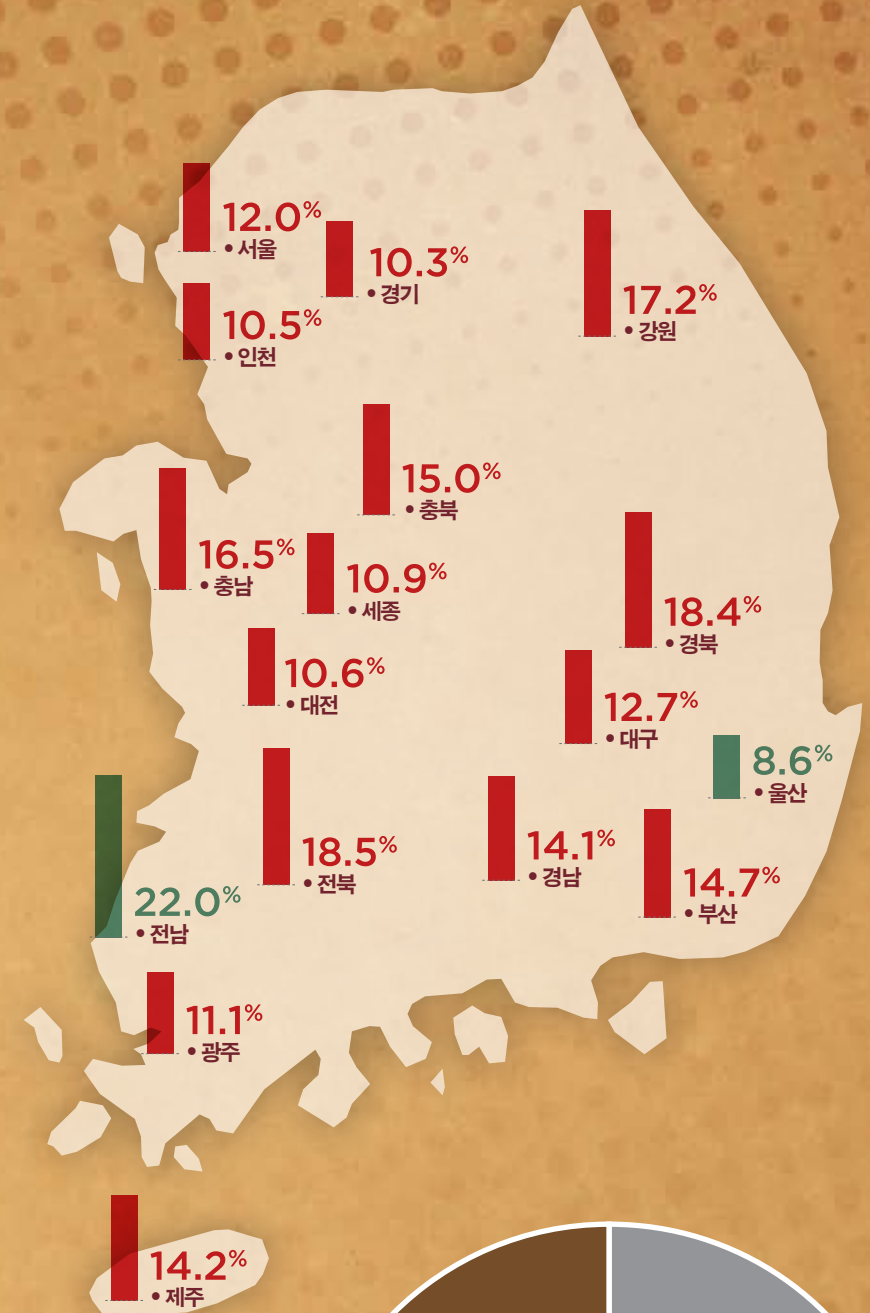
주 : 총가구 대비 고령자 가구 비중
자료 : 통계청

■ 부부가구
■ 부부, 자녀가구
■ 독거가구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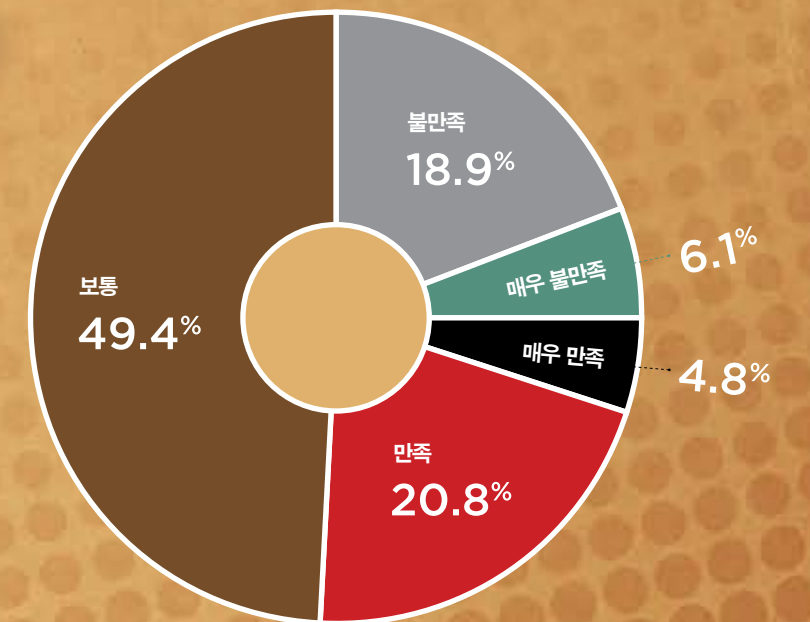
03. 지역별 고령인구

주 : 2015년 기준
자료 : 통계청



04. 삶에 대한 만족

주 : 2015년 조사기준
자료 : 통계청



포트폴리오 재조정 및 지출액 조정으로 안정적 노후 생활

전문직에 종사하는 H씨.
가정주부인 부인과 슬하에
초등학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H씨는 근로소득이 높은 편이며,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많아
노후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대부분 전세자금이어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데다,
향후 자녀들에게 들어갈 비용을
생각하면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의
운용에 고민이 생긴다. H씨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보유자산 및 소득은 많은 편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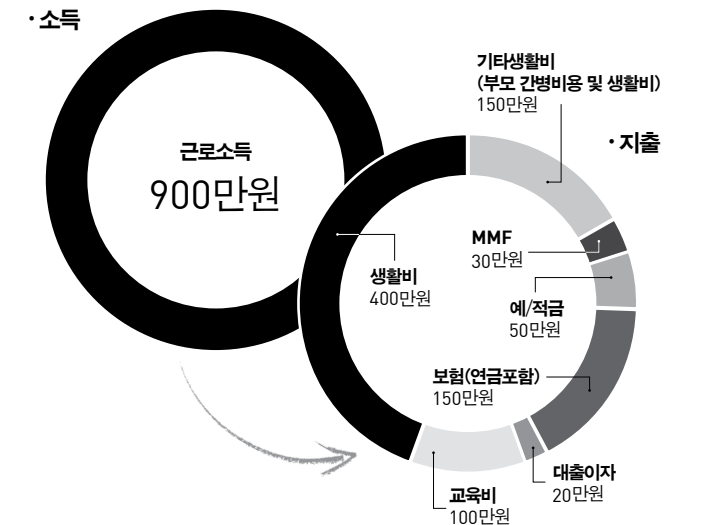
향후 자녀들에게 들어갈 비용으로 인해 고민

전문직에 종사하는 H씨(만 43세)는 가정주부인 부인과 슬하에 초등학교 3학년생, 1학년생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현재 H씨는 별도의 부동산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6억 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금융자산으로는 MMF 등을 포함한 예금 5,000만원, 연금보험 1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채로는 급전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1억원 규모의 마이너스통장 대출한도를 설정해 현재 그 중 5,0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형태로 월 900만원 가량의 수입이 있는 반면 지출은 생활비 400만원, 교육비 100만원, 보험 125만원, 연금보험 25만원, 대출이자 20만원, 예/적금 50만원, MMF 30만원이 있으며, 나머지 150만원은 투병 중인 부모님의 병원비 및 생활비로 지출하고 있다.

H씨는 근로소득이 높은 편이며,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많아 현재 생활은 물론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대부분 전세자금으로 이뤄져 있어 유동성이 떨어지며, 향후 자녀들의 교육비(1인당 7,000만원 예상)와 미래 자녀들의 결혼비용(1인당 2억원 예상), 자녀 상속 등을 생각하면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의 운용에 고민이 생긴다.

현재 재산 및 소득흐름

· 자산	전세자금	6억 5,000만 원
	예금(MMF 포함)	5,000 만 원
	연금보험	1억 원
· 부채	마이너스통장 대출(신용대출)	5,000 만 원
· 순자산		7억 5,000만 원



60세에 은퇴할 예정이며

노후 생활비로 월 500만원을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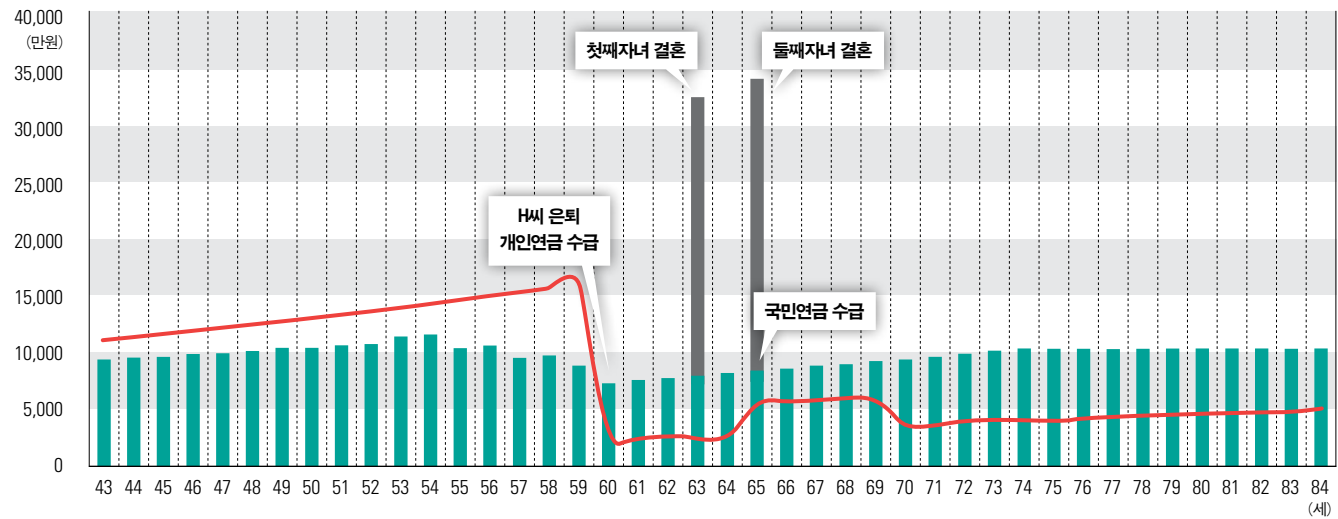
H씨는 은퇴시기를 60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85세까지의 미래 설계를 원한다. 현재 H씨는 생활비로 40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삶을 위해 약 50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H씨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65세부터 매월 약 15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개인연금의 경우 은퇴 직후인 60세부터 69세까지 10년 간 매월 200만원씩 수령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금에 대해 사전 정산이 이뤄졌기 때문에 향후 수령할 퇴직금은 없다. H씨의 은퇴 준비 상태 파악을 위해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¹⁾

을 살펴보면, 은퇴 전까지는 지속적인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은퇴 전까지 매월 100만원 가량의 순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향후에 두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은퇴 직후 65세까지 개인연금으로만 생활해야 하며, 65세 이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더라도 필요 생활비(500만원) 대비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63세와 65세에 발생하는 두 자녀의 결혼비용과 70세부터 국민연금만 수급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기존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전세자금으로 묶여 있는 금융자산까지도 일부 활용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1) 물가상승률은 2.5%를 가정하고 수입은 근로소득과 연금이 포함되며, 지출은 생활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포함. 한편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필요 생활비가 적게 소요됨을 감안해 75세부터 발생하는 노후생활비는 물가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을 종합해보면 현재부터 은퇴 전인 59세까지 약 5억 3,000만원의 금융자산을 확보하는 반면, 60세부터 85세까지 약 18억 1,000만원이 필요해 총 12억 8,000만원 규모의 추가적인 자금 확보가 요구된다.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



금융자산 및 부채 재조정,

지출액 조정, 추가적인 현금자산 마련이 요구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 H씨가 첫 번째로 할 일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재조정이다. 예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자산 운용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마이너스통장 대출 5,000만원을 예금으로 상환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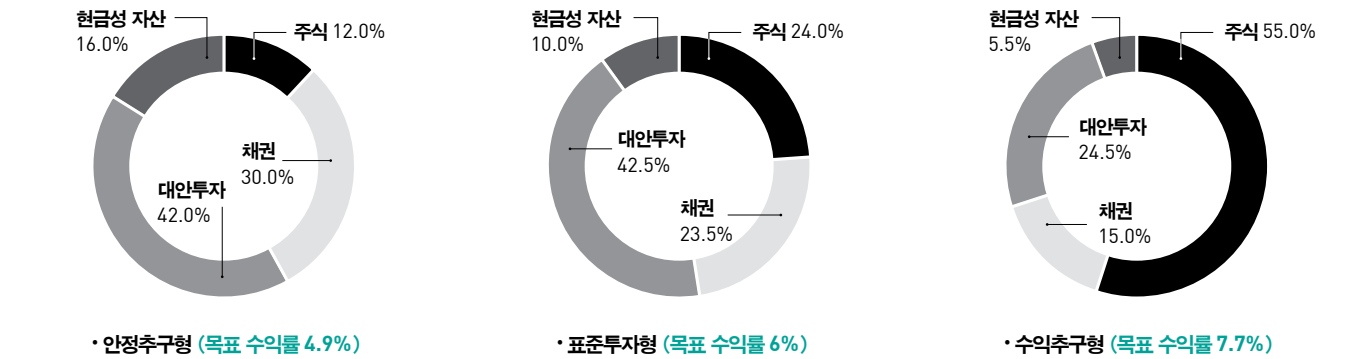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환 후 매월 발생하는 100만원 규모의 잉여 자금을 10.25%의 수익률로 운용할 경우 전세로 묶여있는 금융자산을 활용하지 않고도 노후 생활비,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 등 노후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은 금융자산(전세자금)을 모두 자녀들에게 상속해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10.25%의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추구형(7%)보다 더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 운용으로는 위험 부담이 크며,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높은 요구 수익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출 규모를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인 현금자산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노후 생활비를 500만원에서 현재 수준인 400만원으로 감액하고, 자녀 1인당 결혼비용으로 책정된 2억원을 1억 5,000만원 규모로 축소한다. 이 경우 7.89%의 수익률로 금융자산을 운용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렇게 산출된 7.89%의 수익률도 수익추

구형보다 다소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현금자산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현재 불입하고 있는 예금액을 확대하는 것이다. H씨의 경우 아직 43세로 저축할 수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능한 수단이라 생각된다. 두 번째로 현재 지출구조를 추가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면 전세자금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둘째 자녀가 결혼하는 시기인 65세 이후에는 부부만 거주하므로 현재보다 더 작은 규모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할 현금자산은 약 2억 5,000만원 정도이며, 이 경우 금융자산을 6.56%의 수익률로 운용하여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6.56%의 수익률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표준투자형 포트폴리오의 수익률(6%)에 가까운 수익률이다. H씨의 투자성향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익률로 판단된다.

만약 H씨가 추가적인 현금자산을 확보할 여력이 없다면 자녀 교육비, 노후생활비, 자녀 결혼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감액하여 요구 수익률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현재 생활비 등을 낮추거나 전문직의 특성 상 은퇴시기를 늦추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으므로 H씨의 생활패턴에 맞는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주 :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머니TALK'를 통해 매분기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추구형', '표준투자형', '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 제시
 자료 : 하나금융투자, '머니TALK', 201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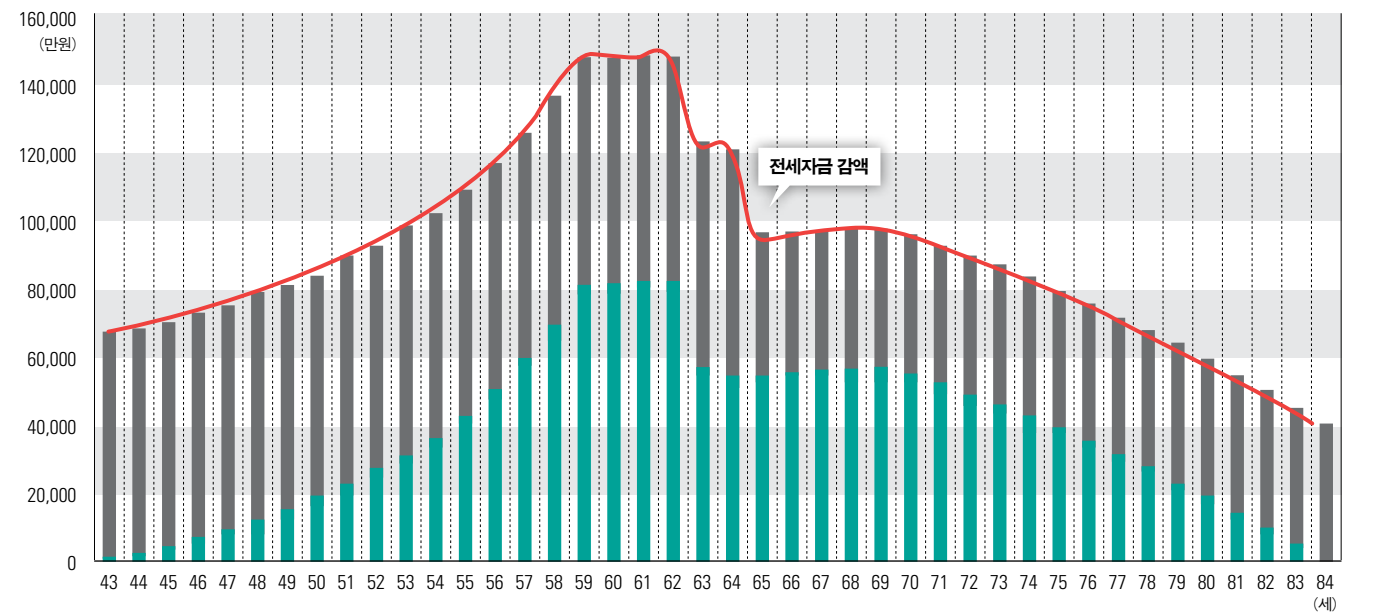
원활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미래 현금 흐름에 관심을 가질 필요

H씨는 소득이 높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이 가능해 노후 준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외에 별도의 연금이 없다는 점,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생활비가 많지 않다는 점, 자녀 상속 등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이뤄졌다고 보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이자 등과 같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녀 결혼비용 및 노후 생활비 등을 부분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가적인 현금자산 확보를

통해 운용 가능한 금융자산을 축적하고 운용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독자들 중에서도 H씨의 사례와 같이 현재 현금 흐름이 좋고 보유 자산이 많은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소득이 있을 때의 현금 흐름과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의 현금 흐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명심하고, 미래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여 노후 준비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순자산 흐름²⁾



2) 위 순자산 흐름도는 상가를 매각하여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며, 자녀들에게는 아파트를 상속해주는 것을 가정한 것

유언.바로.알기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이 유효하려면?



유언장을 제대로 쓰는 것이야말로 상속 분쟁을 막는 첫 단추이다. 하지만 유언장을 작성해도 자필사인이 없거나 날짜가 기재되지 않아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언장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할까? 유언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유언장 작성 시 무엇을 유의해야 할지 알아보자.

가장 널리 쓰이는 유언방식은 자필유언과 공증유언

유언과 상속은 100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자산관리 영역이다. 가족 간 재산분쟁이 발생할 경우 통상 몇 년에 걸쳐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형제간 우애 파탄은 물론 가정경제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지만 유언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 법률 비용의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상속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에 관한 정보 중에는 의외로 잘못된 것들이 많으므로 미리 정확한 내용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유언의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자필유언과 공증유언이다. 자필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내용, 날짜, 이름, 주소 등을 모두 손으로 써야 할뿐 아니라 반드시 도장을 찍어야 한다.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은 물론이고, 아파트의 정확한 동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언, 도장 없이 사인만 한 유언 역시 자필유언으로 효력이 없다. 한편 공증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 2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 상속을 받는 사람, 공증인 사무실 직원 등은 증인이 될 수 없다. 공증유언의 경우 최대 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공증유언은 유언서의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언의 내용이 증인에 의해 알려질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비밀증서유언을 활용하면 가능

주소 없는 유언,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이 유효하려면?
일반적으로 유언은 자필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외도 있다. 컴퓨터로 타자를 친 유언,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유언도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방법**을 활용하면 효력을 갖게 된다. 비밀증서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① 유언자가 손으로 쓰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유언장을 봉투에 넣은 다음 ② 그 봉투에 유언자의 도장을 찍고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자신의 유언서임을 확인시킨 후 ③ 봉투 겉면에 유언장이라고 쓰고 증인이 확인한 날짜를 기재하여 ④ 유언자와 증인 모두가 유언장이 들어



녹음유언을 활용하면 가능

있는 봉투에 사인 또는 도장을 찍은 다음 ⑤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에 유언장을 제출해 그 봉투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비밀증서 유언의 장점**은 유언의 비밀이 보장될 뿐더러 증인이 2명 있으므로 자필증서와 비교할 때 유언서의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적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동까지만 기재하고 나머지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자필유언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비밀증서유언의 방법에 의하면 유언자의 주소가 없어도 그 유언은 유효하다. 그렇다면 비밀증서의 유언방법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언제나 무효가 될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비밀증서의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이 2명이 필요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요건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자필유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유효하다.

스마트폰으로는 유언할 수 있을까?

녹음유언도 민법에 규정된 유언방식이다. 녹음유언의 장점은 방식이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녹음은 분실, 은닉, 파기, 위조, 변조의 우려가 있고 녹음된 음성만으로 실제 녹음자가 유언자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단, 스마트폰으로 유언을 녹화한 경우라면 녹음자가 유언자인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는 스마트폰에 의한 유언이 가장 유용할 것이다. 녹음유언을 하려면 ① 유언자가 유언을 녹음한 후 ② 유언자의 성명과 유언날짜를 이어 녹음하고 ③ 증인이 그 유언녹음에 참여하여 유언자의 유언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인의 성명 역시 녹음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언자의 이름이 녹음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언의 날짜가 녹음되어 있지 않거나 유언증인이 없는 경우 녹음유언은 효력이 없다. 단, 유언자가 누구인지 화면으로 알 수 있고, 유언의 날짜를 녹화된 정황으로부터 알 수 있으며 유언에 참여한 증인이 누구인지 녹화화면으로 알 수 있다면 **스마트폰에 의한 '녹화'도 녹음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

구수유언은 긴급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유언 준비가 안되어 있다면?

구수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자필,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의 유언이 불가능할 때 예외적으로 이용되는 방식이다. '구수'란 '유언자가 말을 한 후 이를 받아 적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용어인데 흔히 임종 직전 유지를 말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구수유언이 유효하려면 ① 임종 직전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평상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 하에 그 증인 중 1인에게 유언을 말한 다음 ③ 이를 받아 적은 증인이 그 유언내용을 다시 유언자에게 확인시키고 ④ 그 유언자와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을 승인한 후 사인 또는 도장을 찍고 ⑤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구수증서는 긴급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언방법**이다. 따라서 구수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유효하므로 위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가능함에도 구수유언을 한 경우 무효가 된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유언은 언제나 철회의 자유가 있으므로 전 유언과 후 유언이 저촉되는 경우 언제나 후 유언이 유효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효한 구수증서 유언의 경우, 그 내용이 전에 작성된 공증유언과 다르다면 구수유언이 효력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몇 년 전 공증유언을 통하여 장남에게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어 둘째에게 재산을 준다는 구수유언을 작성한다면, 구수유언이 유효한 것이 된다. 이 경우 유언내용이 바뀐 것에 대하여 장남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비과세 해외펀드

정책당국은 가계 및 금융사들이 국내 저금리로 해외 자산운용에 대한 니즈,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으로 외환시장의 수급 균형의 필요성 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외펀드의 비과세 제도를 2016년부터 재도입하기로 했다. 해외펀드의 비과세 제도는 2007년에 도입해 2009년 말까지 운영된 경험이 있는데, 당시 해외펀드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주식형 펀드와 달리 환차익까지 과세되는 등 과세 구조상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하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투자자들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도입하는 해외주식 투자전문펀드는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이상 투자하는 신규가입펀드에 대하여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즉, 비과세 전용 계좌를 통해 해외주식형펀드에 신규로 가입함으로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용계좌에 편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현재 '하나UBS글로벌인프라증권투자신탁Class I', '한화글로벌헬스케어자(주식)종류A' 등이 있다. 그리고 펀드의 가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2년간으로 한정하고, 세제혜택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0년간으로 제한된다. 또한 세제혜택은 2007년 도입된 제도와는 달리 매매 및 평가차익뿐 아니라 환차익에 대해서까지 세제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그렇지만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이 여전히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은퇴설계를 통하여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만큼 수익률 제고에 활용하기 좋은 상품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여 비과세 해외펀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IRP를 포함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연금 상품도 노후 준비를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은퇴설계가 필요하다.

비과세 해외펀드 비교

구분	2007년	2016년(시행예정)
대상	- 해외주식형 펀드	- 해외 상장주식에 직·간접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펀드
비과세 소득	- 매매 및 평가차익	- 매매 및 평가차익 - 환차익
가입기간	- 2007년 6월 ~ 2009년 12월	- 2016.1.1 ~ 2017.12.31 (예정)
세제혜택기간	- 2007년 6월 ~ 2009년 12월	- 가입일 부터 10년간
납입한도	- 제한 없음	- 1인당 3,000만원



이체 거래만 해도
다양한 금융 수수료 면제!
새출발 KEB하나은행이 드리는 통합기념 선물

행복 Knowhow
주거래 우대 통장

대한민국 1등 은행
KEB 하나은행

국내은행 중 자산규모 1위(2019년 6월 금융감독원 자료 기준)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는 평생 주거래 우대 통장

① 전자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급여, 연금, 카드대금,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중 17개 항목만 이체해도 전자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②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금리우대!

급여 또는 연금 이체 시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금리 우대 (연 0.1% / 1년제에 한함)

*이 예금은 예금지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공사가 보호되며,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china.com)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사결과 2015-광고-3054(2015.09.30)

웹버Webver족, 세상과 소통을 다시 시작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2014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년층 인터넷 이용자수는 2009년 146만여 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294만 2,000여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5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셈이다. 특히 60대 이상 중 26.4%는 최신 장비인 스마트기기(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인터넷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험 많은 70세 인턴과 열정 많은 30대 여성 CEO가 주인공인 영화 '인턴'은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여 중견기업으로 키운 30대의 젊은 여성 CEO 줄스 오스틴(앤 해서웨이)이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채용한 70세의 인턴 벤 휘태커(로버트 드 니로)를 만나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영화에는 70세 벤 휘태커가 인턴에 지원하기 위해 동영상 지원서에 도전하는 에피소드나 이메일로 업무를 받는 내용, 페이스북을 통해 CEO와 인턴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에피소드 등이 등장한다. 인터넷을 능숙하게 활용하고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이제 젊은 층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보기술 활용 능력 높아

웹버(Webver)족. 웹(Web)과 노인세대를 지칭하는 실버(silver)족을 합친 말로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즐기며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는 시니어 층을 표현한 신조어다. 웹버족은 단순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며, 인터넷을 넘어 정보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다양한 SNS 활동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한다는 것도 웹버족의 특징.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카카오톡스토리 등 SNS 계정을 만들어 자녀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기도 하고, 불특정 다수의 친구들을 만들어 생각을 나누기도 한다. 방송 매체를 대하는 방식도 변모하고 있다. TV나 라디오에서 벗어나 '팟캐스트'라는 새로운 영역까지 호기심을 보이고 있는 것. '팟캐스트(Podcast)'란 애플의 아이팟(iPod)의 pod과 방송(broadcast)의 cast가 합쳐진 신조어로, 스마트폰의 어플(application, 어플리케이션)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청취할 수 있어 청취자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다.

자유롭고 적극적인 소통에 많은 관심 가져

웹버족이 팟캐스트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신의 취향이나 관심에 따라 방송을 선택해 들을 수도 있으며, 방송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그때그때 댓글 형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디오보다 더욱 자유롭고 다양한 팟캐스트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이동진의 '빨간책방'이나 전 아나운서 손미나의 '여행사전', 베스트셀러로도 유명한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지대넓얏)', 법륜스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팟캐스트 계의 1인자로 꼽히는 이동형 작가의 '이작가와 이박사의 이이제이'는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방송으로 꼽힌다.

세대를 초월해 긍정적인 평가 받는 웹버족

정보통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느낌을 격의 없이 소통하고자 하는 웹버족은 다양한 세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시니어들의 지식과 경험이 온라인을 통해 전파됨으로써 세대 격차 없이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웹버들의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하고 정부에서도 시니어들이 정보화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 문화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인터넷 활용과 SNS 활용법 등의 강좌가 많이 열려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TIP

시니어를 위한 정보화 교육 정보

- 한국정보화진흥원 고령층 정보화 교육
- 5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본과정부터 SNS, 스마트폰 관련 등 다양한 강좌를 무료 수강
- 각 지자체 문화센터, 복지관 등에서 정보화 교육 문의 가능



식물이 주는 천연 항산화 성분인 파이토케미컬(Phytochemical)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과일 속의 파이토케미컬은 치유의 영양소로 평가받고 있다.

건강을 위한 새로운 도전, 파이토케미컬 사용설명서.

회사원 신정수(55)씨. 40대 중반 대장암 진단을 받은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식단의 변화다. 기름진 음식, 자극적인 음식, 인스턴트 음식을 주로 즐겼던 그는 암 진단 이후 자연식 위주의 건강 밥상을 실천해오고 있다. 특히 가지를 즐겨먹는다. 이유는 바로 파이토케미컬 때문이다. 파이토케미컬은 채소와 과일의 색소에 들어있는 식물 활성 영양소로 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지는 항암 효과가 브로콜리나 시금치보다 2배 정도 높다. 특히 장 내부에 쌓인 기름기를 씻어내 대장암, 위암, 후두암 등 소화기 계통의 암 발생률을 20~30% 정도 낮춘다고 알려져 있다.

채소·과일의 짙은 색깔 속에 함유

식물이 주는 천연 항산화 성분 파이토케미컬. 그리스어로 식물을 의미하는 파이토(Phyto)와 영어로 화학물을 뜻하는 케미컬(Chemical)을 합성한 말이다. 식물이 자라면서 해충과 미생물, 자외선 등 외부 유해 환경을 방어하기 위해 생성되는 물질로 사람에게게는 항산화와 세포 손상 방지의 효과를 준다. 채소나 과일의 짙은 색깔 속에 함유되어 있다.

파이토케미컬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항산화 물질이나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 면역력 강화, 항염증, 항암 등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면서 '무병장수를 위한 제 7의 영양소'로도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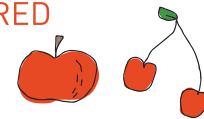
탁상숙 파이토식이요법전문가는 그의 저서에서 "파이토케미컬은 병든 세포를 살리는 치

유 영양소로 작용해 인체의 자연치유기능을 회복시켜준다"며, "파이토케미컬은 몸의 세포 속 유전자에 신호를 보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효소 단백질을 만들어내도록 도와주는데, 이들이 만들어낸 효소 단백질들이 바로 우리 몸의 치유기능을 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각종 채소·과일에 함유된 파이토케미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조리 과정이나 화학적인 추출방법 없이 줄기와 뿌리, 잎까지 그대로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또 채소와 과일 속에 미량 함유되어 있고, 소화흡수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리온도, 조리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한 5가지 컬러 식품을 먹자!

RED



빨강색 | 토마토, 수박, 딸기, 체리, 사과

효능 : 전립선암, 폐암 억제, 골다공증 예방, 면역기능 향상, 심혈관계 질환에 효과적

GREEN



초록색 | 브로콜리, 아보카도, 오이, 시금치, 키위, 케일

효능 : 대장암 예방, 위암 예방, 노화 지연, 눈 건강, 간과 폐 건강

PURPLE



보라색 | 포도, 가지, 블루베리, 적채

효능 : 항산화 작용, 발암물질에 의한 암 발생 억제, 해독, 인지 건강 및 노화 지연, 심장 건강

ORANGE



주황색 | 오렌지, 당근, 감, 굴, 늙은 호박

효능 : 유방암 재발방지, 눈과 피부 건강, 심혈관계 질환에 효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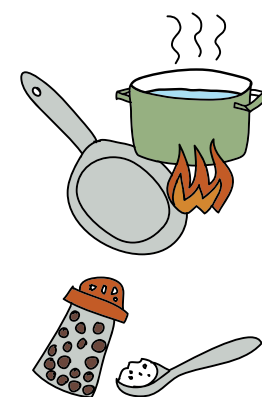
WHITE



흰색 | 마늘, 양파, 양배추, 버섯, 배

효능 : 강력한 살균 효과, 위암, 심장병 예방, 콜레스테롤 조절, 뼈 건강

파이토쿠킹 기본 조리법



데치기 | 물이 펄펄 끓을 때 짧은 시간에 살짝 데친다

끓이기 | 적은 양의 끓는 물에 채소를 넣어 조직이 부드러워지면 채소와 삶은 물을 모두 이용한다

찌기 | 압력솥을 사용해 찌는 조리법은 채소의 조리 시간을 단축시키며 비타민과 무기질의 손실이 적다

조리기 | 밀면이 넓은 냄비를 사용하며, 뚜껑을 열고 조리한다.

볶기 | 프라이팬을 달군 뒤 기름을 두르고 볶는다. 기름의 양은 재료의 3~5% 이하 사용한다.

간하기 | 천연양념 위주로 싱겁게 간한다.

오늘도, 도서관!

도서관이 책과 사람, 삶을 만나는 색다른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좋은 책을 만나는 즐거움은 물론 문화와 예술을 아우르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는 곳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가까이 있었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매력적인 공간, 다양한 도서관 즐기기.

도서관은 이제 책만 조용히 읽는 곳이 아니다. 책과 사람, 그리고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눔의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 요즘 도서관의 모습들이다. 특히 문화와 예술을 담아내는 공간으로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문화예술은 곧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며 “사람들은 부의 축적이 아닌 행복의 가치를 추구하며 도서관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일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작은 도서관’이 유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먼 곳에 위치한 크고 거대한 도서관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함께 성장하고,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람들은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다.

인문학의 허브, 청운문화도서관

청운문화도서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옥 공공도서관. 자연과 어우러져 도심 같지 않은 풍경과 한옥의 향기가 매력적이다. 문학도서관이라는 이름에 맞게 다양한 문학 향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청운문화도서관은 문인들의 창작 활동을 위해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인문학 허브’로도 잘 알려져 있다.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36길 40

운영시간 • 10:00~19:00



영화 보는 도서관, 영상도서관

영화를 좋아한다면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도서관’은 어떨까. 영상도서관에서는 국내에 출시된 DVD, 영화 관련 도서와 논문, 시나리오, OST 등 5만여 점의 영화와 관련된 자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국내 유일의 국립 영화박물관도 함께 위치해있다. 특히 지하에 있는 영화관, 시네마테크KOFA에서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영화들을 매달 테마에 맞춰 무료로 상영하고 있다.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한국영상자료원

운영시간 • 화~금요일 10시~19시, 토·일·공휴일 10시~18시



사색의 공간, 정독도서관

겸재 정선이 인왕제색도를 그리기 위해 인왕산을 바라봤던 장소가 바로 정독도서관 정원이다. 1977년 옛 경기고등학교 건물에 정독도서관을 개관했다. 특히 계절마다 변화하는 꽃과 나무 등 아름다운 주변 경관이 인상적이다. 조용한 도서관 외부공간에 머물며 사색을 즐길 수 있다. 이 밖에도 명상태극권, 문인화, 한국고대사, 고전철학, 기공수련, 한국 세필화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위치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5길 48

이용시간 • 평일 7:00~23:00, 주말 7:00~22:00(*동절기에는 08:00에 오픈)



숲속에서의 힐링,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삼청공원 안에 있어 숲 속의 작은 쉼터와 같은 힐링 도서관이 바로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이다. 삼청공원 한가운데에는 자작나무 기둥과 작은 흑(黑)벽돌을 오밀조밀 쌓아 올린 아담한 건물의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다. 숲의 정경과 햇살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테라스와 아늑한 원목 인테리어가 정겨움을 더한다. 시 창작, 세밀화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34-3 삼청공원 내

운영시간 • 10:00~18:00



사유의 즐거움, 파주 지혜의 숲

사방이 책으로 둘러싸여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24시간 도서관, 지혜의 숲은 출판도시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총 50만권이라는 기증 도서로 이뤄진 이곳은 직접 방문 하면 책이 펼쳐는 풍경에 압도당한다. 지혜의 숲은 그 이름처럼 책의 숲속에 발을 들인 것 같은 색다른 매력에 빠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24시간 열려 있어 마음껏 책에 빠질 수 있다. 매주 인문학 북 콘서트 등 각종 문화행사, 독서토론 등 책을 제대로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운영시간 • 24시간



연금저축상품을 통한 절세 전략

연금 상품으로 똑.똑.한 연말 절세 전략 세우기

지금은 연말 정산 준비에 돌입해야 할 때! 은퇴자산도 축적하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연금 상품을 중심으로 연말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예금금리가 하락하는 등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 여기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은퇴자산 축적이 절실하나 이를 위한 마땅한 투자 상품도 부족한 편이다. 최근에는 미국 금리인상 논의,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둔화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수익을 확대하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가 절세를 통해 세후 소득 또는 세후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것인데,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한 절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은퇴자산을 축적하면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을 중심으로 한 연말 절세 전략에 대해 살펴보자.

근로 소득자에 있어서 세액공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연금상품이 연금저축이다. 연금저축은 연금계좌 통합 연간 1,8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연소득이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16.5%의 확대된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연금저축에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이 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상품으로 원금보장이 되지만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연금저축펀드는 주로 증권사에서 가입하게 되며 다양한 투자 상품을 활용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의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보험 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이 있는데 원금보장이 되며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보험특성상 초기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그러나 가입한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은 돈과 함께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가입한 자금이 만 55세까지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금의 16.5%가 기타소득세로 부과되는데 이는 세액공제로 받은 13.2%(근로소득이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인 경우)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제로 연금저축 유지율은 생각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인 5년 유지율은 60~70% 정도로 5년 이내

연금저축상품(보험, 신탁, 펀드) 개요

자료 : KEB하나은행

상품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가입대상	국내거주자로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종합소득자			
가입한도	연금계좌 통합 연간 1,800만원			
세제혜택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 한도 내 16.5% 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시 13.2% 세액공제			
상품 세부 특징	금리 등	변동 공시이율(2.75%) 수준 최저보증이율 10년 내 2.0%, 이후 1.0% 수준	실적배당	실적배당
	납입기간	5년 이상		
상품 유의 사항	특이사항	종신형 선택가능, 유/무배당상품 최저보유이율 존재	채권형 및 안정형 중 선택 원금보존 일부인출 가능	하위 연금펀드 5개까지 보유계좌 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가능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세율 : 16.5%/과표금액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수익금)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연금소득으로 연령에 따라 저율(3.3~5.5%)을 적용하며 일반연금소득과 달리 분리과세		
연금 수령 시	가입 후 5년 경과하고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수령가능 연금소득세 : 55세 이상 5.5% / 70세 이상 4.4% / 80세 이상 3.3% (연금소득 과표금액 1,2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합산신고)			

해지율이 30~40%에 달했으며 10년 유지율은 40~50%로 더욱 낮아진다. 최근의 경기부진 여파로 중도 해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세제혜택만을 보고 무턱대고 가입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소득, 지출 및 재무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형 IRP를 통한 절세 전략

앞서 설명과 같이 올해부터 일정금액 이하의 근로자에게 소득공제율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 납입액 400만원까지 받던 기존 세액공제 혜택에 더해 퇴직연금 추가금에 대해 연 300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개인·퇴직연금의 총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여기서 퇴직연금에 700만원을 납입하면 모두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개인연금에 700만원을 납입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퇴직연금을 추가 납입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IRP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납입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IRP계좌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인 반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기존 연금계좌를 통한 추가 납부가 가능하다.

개인연금의 경우 신탁, 보험, 펀드로 투자처가 나뉘어 지정되지만 개인형 IRP는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골라 담을 수 있고, 개인연금과 달리 의무 가입기간도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퇴직금을 IRP에 넣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연금 수

개인형 IRP 개요

자료 : KEB하나은행

상품	주요 내용	
절세혜택	종합소득자(근로소득자 포함) 세액공제(16.5% 또는 13.2%)	
가입대상	DB, DC, 기업형IRP 가입자, 퇴직금을 개인형 IRP에 입금한 개인고객	
가입한도	연간 납입한도 1,200만원(연금계좌 금융기관 합산 1,800만원)	
세제혜택	개인형 IRP 내 개인부담금 700만원(DC형 본인부담금 포함)과 연금저축 400만원의 합산 금액 중 최대 700만원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다만,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	
상품 세부 특징	금리 등	정기예금 및 수익증권으로 운영 가능(정기예금 금리 매월 고시)
	납입기간	납입기간이 별도 정해지지 않음
	특이사항	① 자사상품 편입금지로 인해 상품교환한도가 있는 타사정기예금으로 운용가능 ② 수익증권으로 자유롭게 운용 가능하나 주식형 혹은 주식혼합형 펀드의 경우 최대 70%까지 운용 가능
상품 유의 사항	중도 해지 시	일시해지 시 원금+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 과세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과세하며 연령에 따라 3.3~5.5% 또는 이연퇴직소득세 (사적연금이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합산신고대상)
	특이사항	만 55세 이상 및 가입 후 5년 이상 경과 시 연금개시가 되며 영업점 내접하여 연금개시 신청해야 함

령시점까지 이연돼 이직 기간에 대해서도 효율적 연금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IRP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중간정산을 하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몇 가지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이 때 중간 정산된 퇴직금을 60일 이내 IRP 계좌에 이체하면 퇴직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중도해지 시, 연금수령시의 과세 효과에 대해서는 개인연금과 대부분 동일하다.

연금 외의 소득공제 상품 개요

자료 : KEB하나은행

상품	소득공제장기펀드	노란우산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절세혜택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6~24%)	사업소득자 소득공제 (6~38%)	근로자 무주택 세대주 소득공제 (6~38%)	
가입대상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	
가입한도	연 600만원 한도	분기 300만원 한도	월 2만~50만원 5,000원 단위 자유납 (단, 잔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500만원까지 일시 예치 가능)	
세제혜택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예금자보호		미보호 (중소기업청 감독)	미보호(주택도시보증공사 조성재원으로 정부에서 관리)	
상품 세부 특징	금리 등	실적배당	현재 기준금리 2.10% (분기 연동이율)	변동금리 : 2년 이상 해지시 연 2.2%
	납입기간	10년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 시까지	청약주택 당첨 시까지
	특이사항	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없음 단,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	압류 금지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신규가능
상품 유의 사항	중도 해지 시	5년 미만 해지시 6% 추정세액 부과	기타소득세(20%) 및 해지가산세(2%) 48회차 이하 불입 해지시 원금 미지급	5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감면세액 추정
	특이사항	가입시한 : 2015.12.31 (매입체결일 기준)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 과세	소득공제를 받은 후 85m ²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감면세액 추정

올해가 절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상품들

연금 이외에 연말 절세 전략에 유용한 상품들이 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소득공제장기펀드, 노란우산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과세 상품인 재형저축 등이 있는데 특히 소득공제장기펀드, 노란우산공제, 재형저축은 올해까지만 세제혜택이 주어지므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어 최대 240만원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납입기간은 10년이며 내년부터는 가입할 수 없는 상품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사업소득자에 대해 연간 납입액의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 시까지 납입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종합소득금액' 아닌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자는 올해까지 가입해야 종합소득 기준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타 소득공제상품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무주택 세대주이며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한데, 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2016년부터 도입되는 비과세 상품들

비과세 상품으로, 올해까지 적용되는 재형저축 대신에 내년부터는 비과세 개인자산종합계좌 (ISA)가 도입된다. 재형저축은 가입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에 농어촌특별세 1.4% 외에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만기가 되면 1회에 한해 3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기당 300만원 한도를 감안하며, 최대 10년간 1억2,000만원의 원금에 해당하는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시행되는 ISA는 1인당 1계좌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농어민에게 가입이 허용된다. 운용 순이익이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과세가 적용된다. 납부 한도는 ISA 가입일이 속하는 해당연도부터 5년간 연 2,000만원이며 연간 한도액은 기존 재형저축, 소장펀드의 연간 납부액이 포함된다. 내년에 도입되는 ISA보다 재형저축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올해 중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득흐름 및 지출계획 등 재무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세제혜택이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비과세 상품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들에 가입할 경우 주어지는 세제혜택에 반해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해야 하며, 수령하기 위해서도 상당기간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형태로 인해 단기간에 목돈이 필요해 이들 상품들을 해지할 경우 오히려 절세된 금액 이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1사 1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수의 금융기관에 IRP를 분산 적립해 만약 전체 납입금에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해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이들 상품들을 충분히 활용하되 무턱대고 가입하기 보다는 소득흐름 및 지출계획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 행복한 생활을 위한 하나의 생각, 하나멤버스

하나멤버스와 함께하면 당신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가입하면 혜택이 쏟아지는 행복한 멤버십과 만나보세요.



HANA MEMBERS 하나멤버스

하나금융그룹 6개 관계사의 통합 멤버십 서비스. 저축부터 보험 가입, 카드 사용,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거래를 통해 쌓인 하나머니와 제휴사 포인트를 합산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금융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하나멤버스 회원이 되어 다양한 일상 속 행복을 누리보세요.

하나머니란?

연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하나멤버스의 통합 멤버십 포인트입니다. 하나멤버스 가입 고객은 누구나 하나금융그룹금융 거래 및 일반 가맹점에서 하나머니를 적립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적립해 편리하게 사용한다!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한 하나머니

- 현금처럼 ATM출금도 자유롭게!
- 내 계좌로 입금도 안전하게!
- '보내요'와 '주세요'로 친구와 주고받기도 다정하게!
- 가맹점에서 바코드 결제로 간편하게!
- 부족하면 내 계좌에서 충전도 빠르게!
- 다른 포인트와 교환하여 한꺼번에!
- 교통카드 충전도 손쉽게!

Hana Money 1 Click

어디서든 (어디서 써야 하는지 몰라도)
그냥 결제만 하고 (하나머니를 사용한다는 말 없이)
Cashier가 일반 결제 처리만 하면 하나멤버스 앱이 Push로 알려주니까
'사용하기'만 클릭하면 하나머니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Push 팝업에서 하나머니 '사용하기' 클릭!

* 하나머니 잔액 천원 이상 & 매출금액의 20%까지 하나머니 사용이 가능합니다.

쉽고 빠르게 하나멤버스에 가입하세요

모바일 [하나멤버스] 앱 다운로드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가입 하나멤버스 회원 가입 완료!

step 1 > step 2 > step 3

www.hanamembership.com

하나멤버스 를 검색해 보세요

Google play App Store

[주]KCB하나은행 준법감사인 심사일 2015-광고-3078호(2015.09.24)

美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면?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는 글로벌 경제, 특히 신흥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변화를 전망해본다.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앞두고 글로벌 금융시장 바짝 긴장

미(美)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및 통화정책 정상화 개시 시점은 빠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12월 인상론'이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노동시장 개선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에 근거해 12월 금리인상을 선호하고 있으며, 3/4분기 미(美) 성장률이 기존의 1.5%(전기 대비 연율)에서 2.1%로 상향조정되면서 12월 금리인상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이다.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금리인상)가 임박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2013년의 긴축발작(Taper Tantrum)에서도 드러났듯이,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며 글로벌 경제, 특히 신흥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연준이 공세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책 변경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준은 이번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보다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금리인상 이후의 금리인상도 과거의 통화정책 정상화 사이클에 비해 매우 완만한 속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례가 없는 유동성 공급과 제로금리 정책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팽배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까지 시장의 관심이 금리인상 시기와 인상폭에 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연준의 방대한 보유자산 축소차원에서의 만기도래 자산의 재투자 중단에 따른 파장도 염두에 뒤야 한다. 실제로 내년에만 2,161억 달러, 2023년까지 1.72조 달러의 보유자산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재투자 중단은 직접적인 유동성 흡수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결국 미(美) 연준이 조심스럽게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유출은 피할 수 없는 형편이며, 이는 신흥국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론상으로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경우 이는 미국 시장(=장기)금리 상승으로 연결된다. 시장금리 상승은 달러화 자산에 대한 선호를 높여서 달러화 강세를 유발하게 되며, 달러화 강세는 글로벌 유동성의 미국 환류를 가속화하게 된다. 자금의 미국으로의 유출은 달러화 유동성 유입에 힘입어 내수를 확장하고 투자를 진행해온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전 세계 이머징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경제성장 모멘텀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다만 과거 3차례 연준의 금리인상기 경험을 보면 미국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광범위한 충격은 억제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99년의 금리인상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미(美) 달러화가 강세를 기록하지 못했다. 이는 금리인상 이전에 달러화가 이미 강세를 기록함에 따라 막상 금리인상이 단행된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미국에 이어 유로존, 신흥국 등 경쟁국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달러화가 경쟁통화에 비해 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연준 금리인상기의 국내의 금융시장 영향

자료 : 블룸버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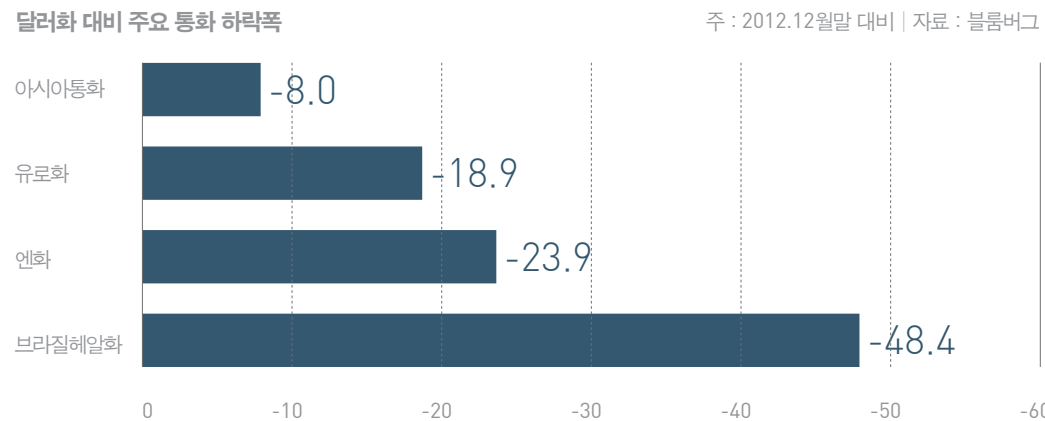
구분	1994-1995년 금리인상기	1999-2000년 금리인상기	2004-2008년 금리인상기	2013년 Taper Tantrum	
개시일	1994.2/4	1999.6/30	2004.6/30	2013.4/30(WSJ 보도)	
종료일	1995.2/1	2000.5/16	2006.6/29	2013.9/5(금리 진정기)	
기준금리 인상폭	+300bps (3.00% ▶ 6.00%)	+175bps (4.75% ▶ 6.50%)	+425bps (1.00% ▶ 5.25%)	0	
미 국	10년 국채수익률	+188.5bps	+498bps	+51bps	+132bps
	S&P 500 주가	-2.14%	-8.48%	+12.03%	+3.86%
	달러화 지수	-8.44%	+8.02	-3.90%	+0.59%
한 국	기준금리	-	+25bps	+50bps	-25bps
	국고채 3년 수익률 (회사채A+)	+338bps	+175bps	+72bps	+47bps
	KOSPI	-1.22%	-16.79%	+62.19%	+0.56%
	원/달러 환율	-2.33%	-3.66%	-16.61%	-0.79%

외환위기 이후 대응능력을 키워온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악영향이 제한적일 전망

이번에도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와 자본유출은 특히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 중인 신흥국의 불안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전히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과 신흥국의 외환보유고 확충 및 변동환율제도 도입 등을 고려할 때, 신흥국이 1990년대에 경험했던 것과 같은 위기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더 나아가 미 연준의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력은 신흥국 각국의 펀더멘털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필자는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대체로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잘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중남미 신흥국의 경우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대응능력을 키워온 아시아 신흥국의 경우 악영향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의 외화부채나 경상수지 구조가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개선되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불거지기 시작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아시아 통화가치는 달러화 대비 평균 8.0%의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중남미 통화나 엔화 및 유로화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 외환시장의 안정적인 모습은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아시아 주요 신흥국 통화의 면역력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아시아 경제권 전반의 펀더멘털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경제 및 외채규모에 비해 외환보유고가 부족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서 다른 아시아 신흥국에 비해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대응력이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남미 신흥국의 경우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정책수단도 제한적이어서 충격파가 클 수 있어

한편 원자재 가격 급락과 내수경기 위축 등으로 성장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수단마저 제한적인 중남미 신흥국의 경우 금리인상의 충격파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중남미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은 갈수록 악화일로인 상황이다. 원자재 가격의 하락 압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중남미 경제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했던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도 최근에 들어서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현재 중남미 국가의 펀더멘털은 2007년에 비해서 약화된 상태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관리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고려할 때 취약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중남미 중앙은행들이 동원할 수 있는 통화정책 수단도 별로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중남미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현재와 같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가 아니며, 미(美)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 역시 기득이나 부진한 중남미 지역의 경제 성장 모멘텀을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급격한 경기하강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브라질의 경우 정치·경제적 상황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당분간 경제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원자재 가격 약세, 재정 및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전환, 소비 및 투자심리 악화,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등의 경제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정치적 혼란 및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정치스캔들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신흥국의 옥석을 가리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

이번 미(美)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신흥국에게 또 다른 도전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모든 신흥국에게 무차별적인 위협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펀더멘털과 대응능력에 따라 신흥국의 옥석을 가리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기차입 축소, 외환보유액 확충, 경상흑자 유지 등으로 대외 건전성을 개선하고 기업 및 가계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분양시장 변곡점 찍었나

올 한해 아파트 분양시장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최근 움직이고 있는 분양시장 분위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집단대출 심사 강화, 가계부채 대책 시행 등 주택금융 여건 변화가 악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심상치 않은 분양시장 변화를 들여다보자.

2015년 유례없는 호황을 누린

아파트 분양시장

2015년 아파트 분양시장은 거래량이나 분양성과 면에서 두루 호황을 누렸다. 예년의 2배에 이르는 연간 분양물량 51만호는 통계집계 이후 최대 규모였으며,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분양권 거래 또한 수도권에서만 2만 건에 달했다. 규제완화와 저금리를 등에 업은 청약열풍 속에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분양물량을 쏟아내는데도, 수십 대 일을 넘나드는 청약 경쟁률은 여전했다. 오랜 침체 이후 간만에 기지개를 켜 수도권 주택시장뿐 아니라 꾸준히 가격상승세를 보여 온 부산, 대구 등 지방광역시에서도 분양시장의 열기가 뜨거웠다. 전국 곳곳의 모델하우스 인근에는 십년 만에 떼다방이 성행했고,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가수요 또한 기승을 부린 한 해였다.

심상치 않은

신규아파트 분양시장 분위기

그런데 요즘 들어 분양시장 분위기 변화가 심상찮다. 물론 공식적인 통계지표로 드러나는 미 분양물량이나 청약 경쟁률 수치는 여전히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 징후라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얘기도. 최근 분양된 일부 단지에서 초기 분양율이 낮아졌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이는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입지가 열악한 지역에까지 공급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문제는 분양권 프리미엄이다. 사실상 단기적인 분양시장의 시황변화를 가장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분양권 매매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불법거래마저도 불사할 만큼 호조세를 보였던 분양권 매매시장이 한풀 꺾인 모양새가 뚜렷하다. 정점을 지나 하락세로 돌아선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은 분양시장의 변곡점을 나타내는 신호로 여겨진다.

집단대출 심사 강화,

가계부채 대책 시행 등 주택금융 여건변화도 악재요인

더욱이 금융당국이 은행권 집단대출 점검에 나서면서 중도금대출 취급에 제동이 걸린 점은 분양시장의 악재 요인이다. 지난해에 이어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책당국의 고민이 깊어졌다. 그런데 올해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의 절반가량이 중도금대출에 기인하였다. 게다가 중도금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단기적인 주택가격 하락에 더욱 취약한데다 자칫 건설사 신용위험으로 번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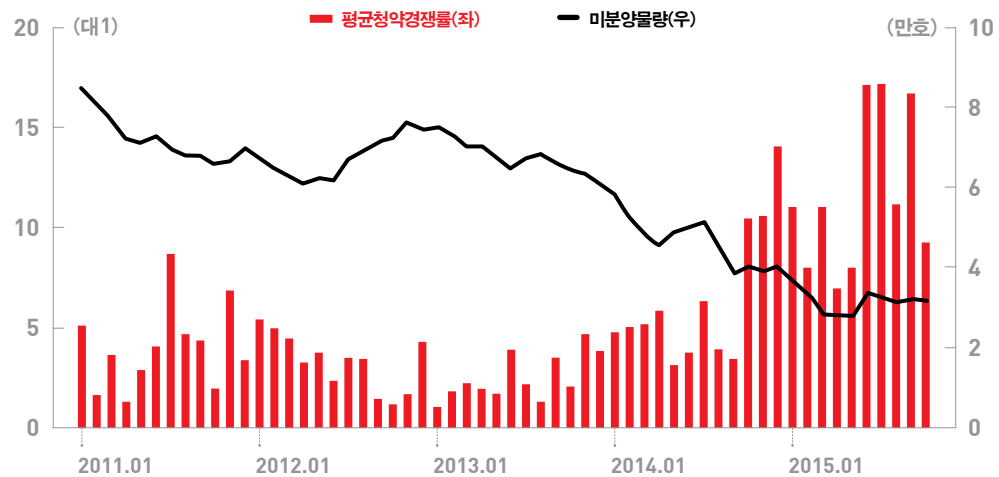
우려가 높다. 결국 은행권의 집단대출 심사강화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아파트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 이용여건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향후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상승, 내년도 가계부채 대책 시행^{주)}과 맞물려 분양시장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주)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분할상환 확대, 차주 소득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전체 주택시장에서 갖는 의미를 감안, 분양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

국내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분양시장은 시가총액이나 거래량 면에서 전체 시장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나, 주택시장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 분양시장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주택시장의 공급요인을 설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시장수요의 변화를 구체적이고, 기민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패턴을 살펴보면, 분양시장 상황의 변화는 대체로 기존 주택시장의 변화에 앞서면서, 분양시장의 흐름을 통해 전체 주택시장의 향방을 예상하는 것이 가능했다. 유례없는 호조세를 누린 2015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 이 시점, 분양시장의 미세한 변화가 의미심장하게 여겨지는 이유다.

전국 청약경쟁률 및 미분양율 추이



자료: 금융결제원, 국토교통부

하나금융투자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올해부터 늘어난 퇴직연금 세제혜택!
하나금융투자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로
2015년 연말정산시 약92만원 세액공제 받으세요



세제혜택 포인트

- ✓ 납입원금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간 700만원 한도) × 13.2%(지방소득세) 세액공제
- ✓ 퇴직금 및 추가납입한 적립금에 대한 운용 중 과세이연 효과
- ✓ 퇴직연금전문펀드로 낮은 펀드 수수료로 자산 증대 효과

수수료 * 가입 후 1년 동안은 10% 할인 적용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 1억 이하 0.20%	- 1억 이하 0.20%
- 1억 초과 0.175%	- 1억 초과 0.175%

가입조건 * 납입한도: 연간 1,200만 원 / 연금저축, DC/DB와 추가납입한 기준 / 소득 공제기간 합산 적용

- 퇴직연금 DB, DC, 기업형IRP 가입자
- 퇴직IRP에 퇴직급여를 적립한 자

※갑사는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원리금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저축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퇴직연금에는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저축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본 자료 기재된 집합투자증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조에 의한 적립금을 납입하는 퇴직연금 전용상품입니다. ※과세 기준 및 방법등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88-3111
www.hanaw.com

행복한 금융을 열어갑니다
하나금융투자

2015년 세계의 시니어들



평균 연령 84세! 일본에서는 최고령 걸그룹이 등장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 거부들은 '노화방지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어반 그라니, 웹버족, 호모 헨드레드, 시니어 시프트 등 2015년을 뜨겁게 달군 세계의 시니어 뉴스를 들여다본다.



01

어반그라니

어반그라니(Urban Granny)는 도시적이고 세련된 멋진 할머니를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젊은 세대의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02

웹버족

인터넷을 뜻하는 웹(Web)과 시니어를 뜻하는 실버(Silver)를 합한 신조어. 인터넷을 능숙하게 즐기고, 각종 커뮤니티와 전자상거래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03

Younger Old

유엔에서는 66세부터 79세까지를 젊은 노인(Younger Old)으로 규정하고 있다. 80세 이상이 되어야 Older Old라고 부른다.

04

호모 헨드레드

호모헨드레드는(Homo-Hundred) 유엔의 '세계인구고령화'보고서에 등장한 용어로 100세 장수가 보편화된 시대의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05

통크족

TONK족은 Two Only No Kids의 줄임말로, 자녀와 함께 사는 대신 자신들만의 오붓한 삶을 즐기려는 노인 세대를 말한다.

06

할빠&시니어맘

황혼 육아가 중요한 사회 현상으로 부각되면서 할아버지와 아빠를 결합한 '할빠'와 엄마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할머니를 뜻하는 '시니어맘' 등의 신조어가 탄생했다.

07

시니어 시프트

시니어 시프트(Senior Shift)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산업의 주요 타깃이 노인 계층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의미 한다. 시니어의 입김은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다.



JAPAN

일본 - 84세의 최고령 걸그룹

최근 일본에서는 48인조 '국민 걸그룹' AKB48을 벤치마킹한 할머니 걸그룹 33인조 걸그룹 KBG84가 화제다. 평균연령 84세. 멤버가 되기 위한 조건은 80세 이상이다. 또 손주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할아버지를 칭하는 '이쿠지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이들이 손주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연간 1조 6,000억 엔에 달한다고 한다.



SWITZERLAND

스위스 - 3층 연금제도, 세계 최고 연금시스템

최근 스위스 국민들의 든든한 노후 보장책으로 자리하고 있는 스위스의 3층 연금구조가 세계 최고 연금시스템 중의 하나로 꼽혔다. 3층 연금제도는 최저연금 보장을 둔 수익관련 공적연금, 나이가 들수록 기여율이 올라가는 필수적인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CHINA

중국 - 정년 연장 논의가 뜨겁다!

올 한해 중국은 청년층과 장년층의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현재 중국의 정년퇴임은 남자는 60세, 여자는 직장인인 경우 55세,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 50세다. 그리고 정년퇴임 이후 바로 노후 연금이 개시된다. 이 정년퇴임 정책을 몇 개월씩 매년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이다.



FRANCE

프랑스 - 건강, 여행, 테크놀로지 즐기는 시니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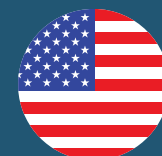
프랑스는 은퇴 후에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복지국가다. 그 연금 수령액도 월급이 가장 높았던 때의 70~80%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은퇴는 인생 2막의 시작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프랑스 시니어들의 올해 핫 트렌드는 '멋지게 나이 들기(Aging Well)'. 여행과 뉴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AUSTRIA

오스트리아 - 배우로 열정 불태우는 만학도

오스트리아 실버세대들은 유럽 내에서도 평생 교육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유로스타트(Eurostat) 통계에 따르면 55세~64세 연령층의 93%가 배우는 활동이면 어디든지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사이버 대학 등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컴퓨터나 비디오 게임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S.A

미국 - 실리콘밸리 거부들의 반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의 거부들이 노화 방지 연구에 거액 투자하면서 '노화 방지 연구'에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페이스북, 오라클, 구글, 인텔 등 불로장생(不老長生)을 꿈꾸는 이들의 거침없는 투자에 실리콘밸리가 떠들썩하다. 페이스북의 피터 틸은 노화방지 등 생명공학 연구재단 므두셀라(Methuselah)에 350만 달러(약 38억원)를 기부했다.

우아한 도전, 서양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나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림을 보면 그즈음 내 마음의 온도가 워진다. 또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는 마음이 치유되는 즐거움도 함께한다. 우리 다 같이 그림을 그리자.

“나를 건진 것은 미술도구였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물감을 섞어 붓을 적시면서 그 무한한 미술의 세계에 매료되었다. 내가 스스로를 화가라고 생각했거나 화가가 되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시인 헤세도 없었을 것이다.”

독일의 시인, 소설가인 헤르만 헤세는 마흔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고, 시인 헤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 멕시코 여류 화가 프리다 칼로는 자신의 행복과 불행, 고통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선택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다.

* How to oilpainting

서양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유화를 추천한다. 유화는 다양한 기법이 가능하고, 그림 안에서 사물의 위치를 바꾸는 등 공간 이동이 가능해 원하는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 보존성이 뛰어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치는 높아진다.

유화의 재료와 도구는?

캔버스, 유화 물감, 유화 붓, 나이프, 유화용 팔레트, 기름통, 린시드유, 테레빈유, 천, 이젤, 앞치마, 토시 등이 있다.

유화를 잘 그리는 방법은?

중후한 느낌을 주는 유화는 물감을 여러 번 겹쳐 칠해 완성한다. 이 과정에서 이미 칠한 색은 얼마든지 새로운 색으로 바꿀 수 있다. 조금씩 색을 겹쳐 수정하는 과정에서 색의 뉘앙스는 풍부해지고 깊이 있는 색감이 만들어진다. 유화를 채색할 때는 무겁게(어두운색) 시작해서, 가볍게(밝은색)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작품을 완성해나가기면 된다.

유화그리기가 주는 효과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의 치유를 경험한다. 노란색은 긍정의 기억들을 자극하고, 빨간색은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파란색은 삶의 희망을 속삭인다.

도움말 : 이해성 서양화가



Trusted & Global
하나금융그룹 New Vision!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

행복이 knowhow

행복 미래 설계

하나금융그룹의
은퇴설계 통합 솔루션
행복 knowhow

통합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 어디서나 준비된 상품을 만날 수 있고, 동일한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

전문 시스템으로 탄탄하게
• 은퇴설계 전용 인프라 구축
• 일대일 맞춤 컨설팅 전문인력 제도 운영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든든하게
• 은퇴 전용 상품 운영
• 비재무 설계 서비스 통합제공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하나증권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며, 하나 S&카드사는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 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6798호 2014.10.13~2015.09.28)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 TEL. 02-2002-2220 | FAX. 02-2002-2610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생명, 하나카드